

## SERMON EASTER DAY 2107

우리는 이해하는 척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지난 주에 당황하고 겁먹고 도망 가는 제자들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겿세마네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진실, 사랑, 연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을 배신, 조롱, 처형한 채 토요일의 끔찍함과 허무함,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활절이라 부르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부분과 연관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척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무엇이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 왔는지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알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읽는 복음서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글을 쓴 단지 좋은 이야기일 뿐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붙여진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목에 걸려 있는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점점 더 면밀히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중 몇몇이 사순절을 통해 읽고 있는 작은 책의 제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느다란 실 모양의 선은 연결고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샘 웰즈가 말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완전한 승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반대죠. 그것은 더럽고, 수치스럽고, 보이지 않으며,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내면에 놓여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질서와 구조를 제공하는 범위 아래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세상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안으로, 죽음의 안으로, 고통 안으로, 아픔, 거절, 상처, 폭력, 굶주림, 고난과 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넘어서,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일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파괴, 절망 그리고 최악의 인간 행동의 많은 이미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훌륭하고 용기 있고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무의미 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투쟁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가 침묵 속에서 있기 전에 장엄한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새벽에 그 정원에 갈 수 없고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시체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뒤따르는 것이며, 모든 의미를 잃는 손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일어나든 우리 모두는 여기 있습니다, 이날은 삶의 축제에 관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종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 우리는 그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우화, 혹은 심지어 공상 과학 소설의 선반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은 재 확인 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학 방정식이나 과학적 실험의 렌즈를 통해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뒤로 물러섭니다, 어찌 됐든 꼭 필요하진 않겠지만 우린 어쨌든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의 삶에서 분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빈 무덤의 이야기에서 듣습니다, 천사들의 형체와 예수님의 형체를 정원사로 오해 한 것, 우리의 모든 질문을 충족시키고 증거를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심오하고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도마의 불신과 의심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척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아마도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 자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형 집행의 아픔에서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을 것 입니다. 현재가 그들을 파멸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것은 변화의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척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 일어난

믿음의 도약입니다. 십자가처럼, 이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내면의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세계의 고통, 부당함, 폭력, 탐욕과 교만을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 이야기에 제공하는 것은 다른 진리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말일 뿐이고 부활이 이루어진 것은 인간의 이야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었을 뿐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것 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은, 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더라도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한 바울에게도 같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 시킨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골로새 기독교인들에게 쓴 글을 듣습니다, 그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와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것 이상의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오늘 아침 여기 우리는 회의적이고 멸시하는 세계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심오한 해결책을 제시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것을 알아낸 사실은 수세기 동안 지혜의 남성과 여성의 삶에서 답습하고 있는 경험의 가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연설하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가 개신교 교회들에서조차도 알고 있는 세인트(성인) 이름들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수 천명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척 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의 삶에나 그 보다는 더 큰 범위로 이 세상에 제공 하실 희망, 사랑, 자비를 위해 외침을 재발견하도록 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부활은 내면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와 목적하는 것과 같이 살아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내면의 이야기가 깨진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그 경험을 고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이집트, 시리아, 이락 그리고 레바논,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그리고 미국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위협을 가지고 삶을 위협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것이며, 알 수 없는 이에게 도약하는 믿음,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부활에 대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삶에 관한 것 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또한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축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한 내면의 이야기를 보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간과 창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제공되고 나누어진 생명을 말합니다. 공포와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부활 하셨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도록 우리는 초청 받았습니다.